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남 진 규
문화융성 위원회 문화산업 전문위원

앞선 칼럼에서 일본 토토리현이나 구마모토현의 캐릭터와 지자체의 상생 모델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성공 사례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음을 기고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물론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돈과 시간인데, 과연 이것만으로 성공 사례가 구축될 수 있었을까? 다른 부분의 성공 요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성공 사례들이 우리나라, 우리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때 가능할까라는 자문에 답안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 가면서 우연하게 성공 사례를 보유한 그들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지자체와 콘텐츠 관련 기업의 상생

되었다. 그들의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개발형과 지역기반형의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구분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임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지역개발형은 지역 전통이나 문화·인물·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콘텐츠로 구분하였고, 지역기반형은 지역 소재 기업의 캐릭터나 지역 출신의 인물(저작권자, 개발자 등)을 활용하는 등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콘텐츠를 지자체에 맞게 활용하는 것으로 정해 보았다.

지역개발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과 영화 ‘해리포터’와 ‘브릿지 존슨의 일기’의 주무대인 영국 코츠월드(Cots World), 그리고 지역기반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토토리현의 ‘가가와 기타로’(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를 들 수 있겠다.

두 가지 구분 모두 지역과 연계된 콘텐츠와 지자체 간의 상생 방안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필자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사례들 대부분 지자체는 있었으나 이 사례에 참여한 지역 기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사례로 언급한 국가의 지역들조차 지역 기업의

참여나 역할은 필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지역 기업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지역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성공 사례로 인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경우가 중점적으로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원천 소스는 각 지역마다 있다고 볼 때 누가 이 원천 소스를 개발하고 누가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지역에서 콘텐츠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성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과제 수행 기업을 대부분 서율이나 수도권에서 찾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관련 지역 기업들은 과제 수행의 경험이나 성과에 대한 품질 면에서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과제나 용역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는 생각도 틀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의 관련 업체들은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반문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역에는 콘텐츠 기업이 없어야 맞다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자체 모두 콘텐츠 관련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 지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부분에 모두 공감하고 기회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신규로 창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자체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상생이 이뤄져 곧바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자체는 지역 기업을 적극 과제에 참여시킴으로 경험과 안목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은 분야별 특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이뤄내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지자체와 콘텐츠 관련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여러 국가의 지자체 콘텐츠 관련 성공 사례와 조금은 차별화된,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협력하여 이뤄낸 우리만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료칼럼

너무 늦게 발견되는 녹내장



윤 길 중
밝은안과21병원 원장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안구 속 시신경이 눌러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시신경이 파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신경은 눈으로 빛을 받아들여 뇌로 전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시신경의 손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시야 결손이 일어나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는 무서운 안구 질환이다.

녹내장은 대부분의 환자가 초기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기가 쉽고, 이미 시야 손상이 많이 진행돼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녹내장은 진행 정도에 따라 시야의 결손량이 많아지고 실명까지 이르지만, 정기적인 치료만 잘 한다면 시야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평생 아무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 때문에 녹내장은 조기발견과 정기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녹내장의 치료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치료는 약물, 레이저,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 적절한 안압을 유지시켜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으로 받아들이어진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의 보완 혹은 대체, 그리고 섬유주 절제술과 같은 녹내장의

수술의 전단계로서 각광을 받는 레이저 치료법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성형술 (Selective Laser trabeculoplasty(이하 SLT)이 바로 그것이다. 안구 속의 방수가 유출되는 통로인 섬유주에 짧은 시간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써,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손상된 섬유주에만 선택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방법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ALT(아르곤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고 시술 후 안압 상승 등의 합병증도 드물다.

“SLT”는 2001년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 199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징은 기존 약물 사용이 불가능했거나 평생 약물사용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환자의 녹내장 치료에 효과적이다. 녹내

장이 악화되기 전 시술을 받을수록 효과가 크다. 시술시간은 5분 내외로 정상 세포 파괴 없이 여러 번 시술가능하며, 특별한 합병증 없다.

시술 후 하루 내에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 ‘SLT’가 필요한 환자는 ▲약물치료로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임신(계획)이 있는 경우 ▲약물 사용으로 종혈과 작열감 등이 유발되는 경우 ▲초기 녹내장 환자 중 안약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술적 처치가 불가피하지만 환자의 전신적 상태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다.

70~80%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SLT’는 3명 중 1명은 안압하강 효과가 지속(5년 이상)돼 기존에 약물 사용이 불가능했거나 평생 약물 사용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환자에게 첨단 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 고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에 대한 자조



김 용 하
전 광주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근래 김모 전 국정원의 처신을 두고 회화화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국정원장은 나라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임무와 경제 사회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도와야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특히 남북이 준 전시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엄중한 현실에서는 그 책무의 무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직 중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을 수행하여,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한 사람이다. 비록 현장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같이 처신을 한 것을 두고, 이 나라의 국격과 품위까지 거론하며, 자

조 섞인 말들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데 있다. 소위 집권 여당에 핵소로 입당한 것이나, 아무 사전 검증도 없이 덥석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하루도 채 못되어 출당 운운하면서 조석개변하는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인물을 국가 최고의 권력 핵심에 등용했던 정권이나, 당시의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한없이 가벼운 그의 처신을 보면서 이 나라의 소위 지도자나 국회의원 등 사회의 지도층을 자부하는 인물들의 품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이번의 교과서 국정화문제로 그렇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국가의 미래를 재단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어느 개인의 정치적 관점이 나 정권자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종합적이고, 사실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최대공약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짧은 기간에 줄속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경거망동일 뿐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내용은 공정여부를 떠나 불신으로 인하여, 두고두고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후환을 불러 올 것이다.

또한, 야당이나 반대론자들도 그렇다. 추진하는 사람들의 부모의 과거 행적을 들어, 교과서의 집필방향이 잘못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논리와 합리적 논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 반대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뻔하면 길거리로 문제를 들고나가는 행태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논증과 정책을 대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지 시민단체에서나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구차한 가벼운 행동일 뿐이다.

최근 유니세프(유엔 아동기구)에서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 아시아권 17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를 존경한다”에서 꼴찌이며,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가 17개국 평균의 10배이며, “권위를 사

람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가 5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사회에서 역대 대통령을 지낸 이들이 거의 일기 후에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뿐인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을 대표했던 대통령이나 주요인사들을 언필칭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비속어를 써서 욕설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어린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가?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풍토에서, 그 외의 누구를 존경하며, 하물며 이사회 의원으로 주변의 어른을 공경하거나 예우하려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는 자업자득이다. 어른들이 평소 행한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의 후과”인 것이다.

제발 정치인들이나 어른들이 사려깊지 못한 가벼운 언행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후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불신하고 비하하지 않도록 크게 자성해야 할 일이다.

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노력도 필요하리라 본다.

다행이 빠놓지 않고 찾아오던 ‘수능한파’가 올 때는 없다고 한다. 외로움을 견뎌왔을, 오늘따라 더 춥고 외롭게 느껴질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 ‘포근함’이 전해지길 바란다.

▲순국회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社 說

호남에서 깎은 정부 예산 영남에 퍼부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영남의 소관 부처 요구액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호남은 대폭 삭감돼 2016년 총선 표밭 다지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분석한 SOC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한마디로 상식선을 크게 벗어났다. 정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소관 부처 요구액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인데 영남 지역의 경우 깎기는커녕 오히려 7000억 원이나 늘린 것이다.

대구(3064억), 경북(2528억), 부산(1413억), 울산(633억)이 국토부 안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영남 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대통령 측근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해 선심용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소장품)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의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술관 측이 매년 구입하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특정 장르와 작가 등에 편중된 탓이다.

임택 광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이 최근 3년간 구입한 미술품은 모두 347점으로 한국화 54점, 서양화 195점, 사진 36점, 판화 27점, 조각 24점 등이었다. 서예·디자인·건축 분야는 아예 없었다. 또한 창작 연도는 2010년 이후가 161점, 2000년 이후 133점인 반면 1970년대 이전 작품은 18점에 그쳤다. 특히 일부 작가의 작품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입된 것으로 드러나 특히 의혹의 소지도 다분하다.

사실 시립미술관의 색깔 없는 컬렉션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하다.

기재부 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대구선 국선 전철에 대해 국토부는 애초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3배를 늘려 잡았다. 부산~울산 복선 전철도 23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대구 순환고속도로는 750억 원에서 두 배,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은 46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곧 돈이다 더 절감하려는 정부 기준과도 어긋나는 처사다. 반면 전남과 전북은 각각 143억6100만 원, 816억 7600억 원이 줄었다. 광주에서는 390억7000만 원 늘었지만 호남 전체로는 569억6700만 원이 깎여 큰 대조를 이뤘다.

정부 예산의 특정 지역 퍼주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파헤쳐 잘못이 있다면 응당 시정해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조목조목 따져 형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2012년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현황’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책정된 구입 예산 7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같은 해 열린 광주아트페어에서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지역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원로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데도 모자랄 판에 집계된 아트페어를 인위적으로 살리기 위해 한해 예산의 3분의 1을 들여 출판 작가의 작품들을 사들인 것이다. 당연히 공립 미술관의 소장품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트페어의 특성상 작품성보다는 상업성 강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해 평균 5~6억 원의 구입 예산으로 양질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 컬렉션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색깔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차별화된 기준과 방향을 세워 컬렉션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 땀 두 땀 무운을 빌며/ 바늘을 옮기는 양 든든도 하다/ 일본의 명예를 걸고 간간 이어/ 훌륭히 싸워주...”

1940년대에 쓰인 ‘부인근로대’(婦人勤勞隊)라는 이 시를 대학 시절에 처음 읽고 적이 실망했다. 일제에 강제동원돼 군복을 껴매는 여인들의 애국 충정을 그린 시의 작자는 다름 아닌 노천명(1911~1957). 교과서에 나오는 ‘모가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사슴)라는 시를 쓴 시인이다. 이광수·이효석·최남선·채만식·모운숙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작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친일행위를

등 일제의 잔혹상을 고발했다. 이 책은 지난 1937년 세계 2차대전 당시 수십만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중국 난징(南京) 대학살의 실체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아이리스 장은 자신이 발굴한 고통스러운 증언과 ‘사실’ 때문에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일본 극우단체의 끊임없는 살해협박에 사달렸던 그는 서른여섯 살이던 지난 2004년 11월9일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졌다. 그가

목숨을 내놓고 파헤쳤던 난징대학살 관련 문건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

로 등록됐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근·현대사를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하는 ‘역사 전쟁’이다. 논란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 아직 대한민국 역사에는 학자들이 매워야 할 공백이 숏하게 많다. 일제 강점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 광주항쟁 등등. 부족한 사료에 허덕이는 이 역사를 써야 할 학자들이 역사 전쟁에 위말려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 착잡한 마음 가늘 길 없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수험생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나이에 수험생은 봄철 뽀짝 나들이부터 여름 휴가, 가을 단풍까지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들을 지

켜보는 부모와 형제, 친척 등 가족들도 ‘노심초사’하며 한동안 절제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떨어지는 낙엽조차 음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짜를 세어가

며 가슴을 졸여온 젊은 청춘들. 그들에게는 마치 수능이 삶의 전부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나 또한 그랬듯, 한해를 버텨온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간 ‘고3’이라는 타이틀에 짓눌려 왔을 아이들. 이제는 자유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아이들이 ‘헬조선’, ‘흙수저’라는 또 다른 족쇄에 잡혀 날개가 꺾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